


## 목 차

	<b>모빌리티 동향</b> .....	<b>11</b>
<b>해외</b>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잡아라”...삼성전자도 첫 참가하는 ‘베이징모터쇼’ ...	11
	- ‘완전 자율주행’에 힘주는 머스크...수익 확대·우려 불식할까 .....	12
	- 中 최대 콜택시社, 자율주행차 양산...로보택시 달린다 .....	13
<b>정책</b>	- 국토부, 도로 충돌·교통사고 위험 시에측 시범운영 .....	14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	15
	-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필수로 받는다 .....	16
	-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	17
	- 새만금 ‘UAM 지역시범사업’에 민·관 발 벗고 나선다 .....	17
	- 日 수출규제 5년, 현대차그룹이 도레이와 손잡은 이유 .....	18
<b>기업</b>	- 현대차그룹, 사우디 기가프로젝트에 ‘친환경 모빌리티’ 힘 보탠다 ..	20
	- ‘발렛파킹 로봇’ 나온다...“비좁은 공간도 알아서 주차 척척” .....	21
	- ‘레벨4’ 자율주행차 인천 도심 실증 사업 돌입 .....	22
	-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사업 본격화...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	23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잡아라”...삼성전자도 첫 참가하는 ‘베이징모터쇼’

- 중국 베이징에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리는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 특히 이번 모터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처음으로 참가해 중국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

< 오토 차이나 2024 (출처: 오토 차이나 공식 브로슈어) >



- 중국은 거대한 내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등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번 모터쇼의 화두는 전기차(EV)가 될 것이라는 전망
  -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인 BYD(비야디)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상용차 포함) 시장에서 전년(182만 대) 대비 58.3% 증가한 288만 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
- 업계에서는 이번 모터쇼에 전 세계 모빌리티 분야 수백개 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모터쇼에서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분야로 나뉘 부스를 구성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에 사용되는 최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

출처 : 세계일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잡아라”...삼성전자도 첫 참가하는 ‘베이징모터쇼’ (2024.4.19.)

## '완전 자율주행'에 힘주는 머스크...수익 확대·우려 불식할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핵심 기술이라 자부해왔던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 일론 머스크, 북미 지역 판매 차량에 한 달 무료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차량을 고객에 인도하기 전 반드시 완전주행모드의 시범운행을 진행하라고 지시

<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 >



- FSD라는 명칭은 차량이 100%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FSD 베타는 완전 자율주행 최고 단계인 레벨5에 크게 못 미치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의미
  - 현재 전 모델에 차선 내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할 수 있게 돕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의 고급 버전으로 평가
  - 블룸버그통신, "머스크 CEO의 이러한 지시는 테슬라가 핵심 수익원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을 두고 고삐를 얼마나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업체의 저가 공세에 주춤하고 있는 테슬라가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해석
- 월가, FSD 소프트웨어 이용 확대가 테슬라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반면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위험하다는 대중의 우려를 달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음

출처 : 아시아경제, '완전 자율주행'에 힘주는 머스크...수익 확대·우려 불식할까 (2024.3.30.)



## 中 최대 콜택시社, 자율주행차 양산...로보택시 달린다

- 중국 최대 콜택시 앱의 인공지능(AI)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
  - 중국 자동차 기업 GAC의 친환경 자동차 브랜드 아이온(AION), 소셜미디어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콜택시 앱 디디의 자율주행 기업 디디오토노모스트라이빙과의 합작사가 중국 정부 승인을 획득해 내년부터 L4급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한다고 밝힘
  - 두 회사는 아이온의 완성차 플랫폼과 전기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디디의 자율주행 서비스 L4급 기술 솔루션을 탑재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할 예정
  - L4급은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주행이 가능한 등급

〈 디디의 자율주행 택시 (출처: 디디추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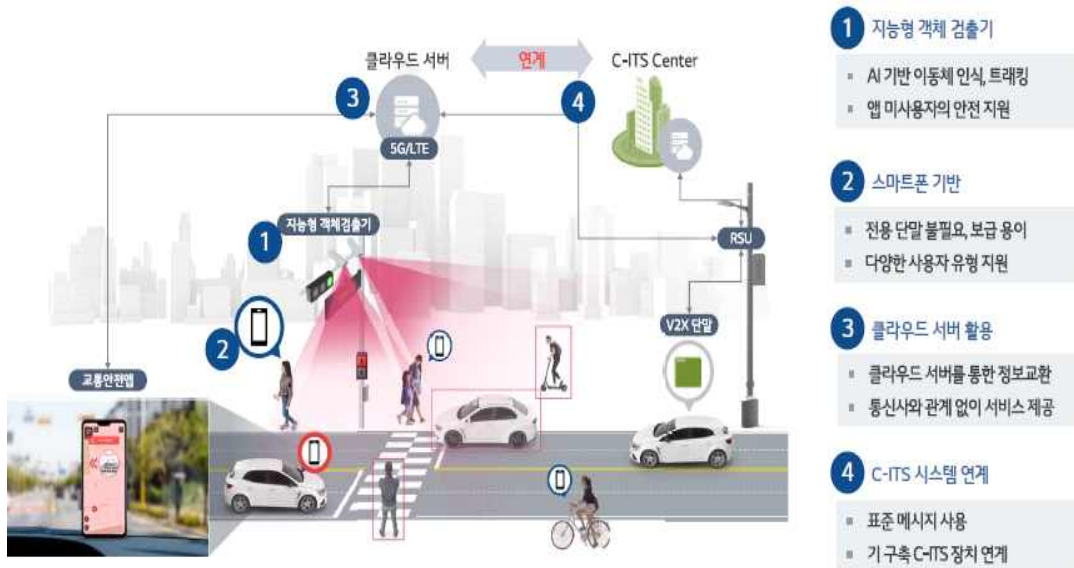
- 해당 서비스는 디디의 자율주행 무인화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디디의 여행 서비스와도 연계될 예정
  - 디디의 운영사인 디디추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디디의 중국 등지 15개국 글로벌 활동 사용자 수는 5억 8,700명이며, 연간 활동 기사 수는 2,300만 명으로 집계

출처 : ZDNET Korea , 中 최대 콜택시社, 자율주행차 양산...로보택시 달린다 (2024.4.8.)

## 국토부, 도로 충돌·교통사고 위험 AI예측 시범운영

- 국토교통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 시범운영 예정
  -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특화 서비스의 일종
  - 국토부는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보호구역 C-ITS를 시범운영할 계획
  -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CCTV, 라이다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감지 인프라로 차량·이륜차·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 도로충돌 교통사고 위험 AI예측 시스템 (출처: 국토부) 〉



- 이번 시범운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안전위험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해짐
  - 국토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한 바 있음
  -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서비스 설명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
-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C-ITS 기술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범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서울경제, 국토부, 도로 충돌·교통사고 위험 AI예측 시범운영...미래 모빌리티 안전확보 (2024.4.14.)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됨
  -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
  - 전기차 연비별 분류는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로 시행

< 내연차 및 전기자동차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사항 >

현행	변경
	
내연차(하이브리드차 포함)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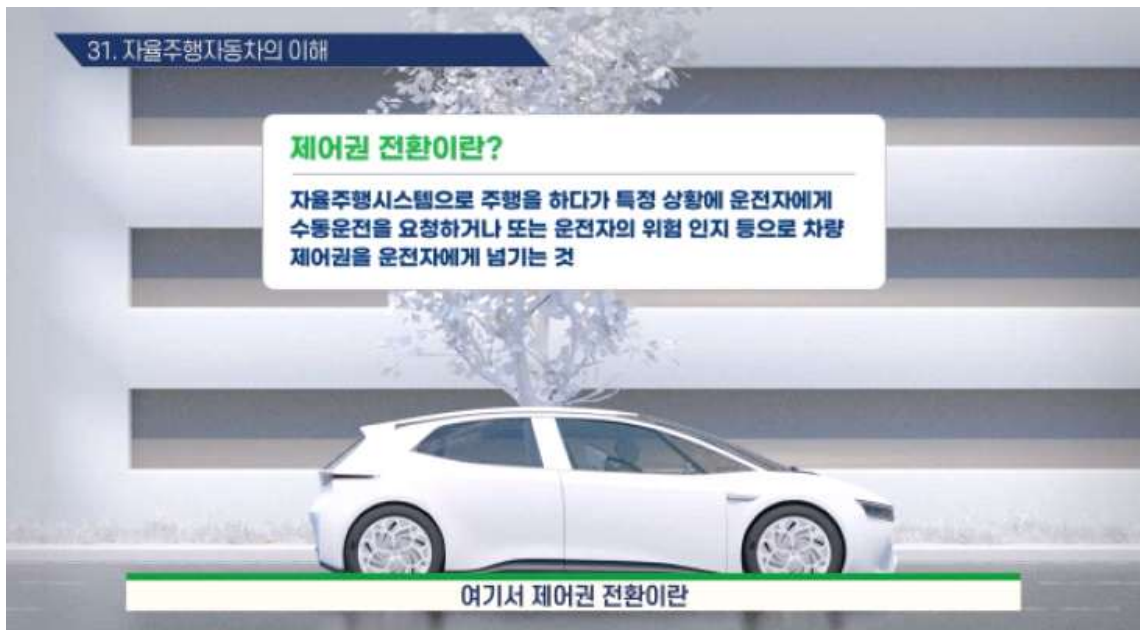
-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19년 8.9만 대 → '23년 54.4만 대)와 등록모델('19년 27개 모델 → '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 원)에 비해 약 84만 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 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 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2024.3.29.)

##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필수로 받는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
  - 도로교통공단, '완전 자율주행시대 대비 추진전략'중 하나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힘
  -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 중이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현장에서 신청 가능
-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보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 (출처: 도로교통공단) >



출처 : 매일신문,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필수로 받는다 (2024.4.4.)

## 새만금 'UAM 지역시범사업'에 민·관 발 벗고 나선다

- 새만금개발청,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K-UAM 드림팀이란 국토교통부 주관 UAM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국내기업(한국항공공사, SKT, 한화시스템 등)을 이룸
  -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일환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 운용 부지 등 인프라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이와 관련하여 K-UAM 드림팀은 지역 UAM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제반 기술 등을 제공하기로 뜻을 모음

출처 :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새만금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민·관 발 벗고 나선다! (2024.4.16.)

##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 국토교통부, 3월 26일 백원국 제2차관 주재로 'UAM 팀코리아'(K-UAM 논의 및 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이하 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TK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
  -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 "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2024.3.26.)



## 日 수출규제 5년, 현대차그룹이 도레이와 손잡은 이유

- 현대차그룹은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갈 신소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고성능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레이의 소재 기술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 양 사는 이번 협력으로 경량화 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CFRP 개발이 끝나는 대로 고성능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할 계획을 세움
  - 또한 미래 모빌리티 상품에 신소재를 도입해 차별적인 제품 경쟁력을 선보이고 산업 전반의 혁신까지 주도할 방침

〈 현대차 정의선 회장 〉



- 1926년 설립된 도레이그룹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와 전자 정보 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재료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
  - 도레이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탄소섬유는 경량화와 강도·내열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춘 소재로 자동차·항공기 등 모빌리티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현대차그룹, 일본 도레이그룹과 탄소섬유 신소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전기차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
  - 자동차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안전을 위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기존 철강보다 5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이상인 ‘꿈의 소재’ 탄소섬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질 수 있음
- 시장조사 기관인 포춘비즈니스는 2032년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 규모가 70억 5,000만 달러(9조 7,0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현재 도레이그룹은 시장의 40%를 장악 중

< 도레이의 탄소 섬유 >



- 현대차그룹은 탄소섬유가 적용될 구체적인 모빌리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출시할 고성능 전기차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업계 관계자, “우수한 물성에 비해 아직 탄소섬유의 단가가 철강보단 4~5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 저항이 낮은 고성능 전기차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양 사의 협력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소차와 UAM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 실제 탄소섬유의 활용 범위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수요가 맞물리면서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차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섬유와 같은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항공용 탄소섬유의 경우 UAM을 비롯한 미래항공교통(AAM) 기체 개발과 상용화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출처 : 서울경제, 일본,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日 수출규제 5년, 현대차그룹이 도레이와 손잡은 이유 (2024.4.19.)



## 현대차그룹, 사우디 기가프로젝트에 '친환경 모빌리티' 힘 보탠다

- 현대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에서 RSG(Red Sea Global)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
  - 사우디는 원유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우디 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 RSG는 네옴(미래형 신도시), 키디아(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로싌(주택 개발), 디리야(유적지 개발) 등 사우디가 선언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중 홍해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
  - 현대차그룹은 RSG와의 MOU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실증,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협업 기회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존 파가노 RSG CEO, 이동건 현대차그룹 GSO 미래성장전략사업부 상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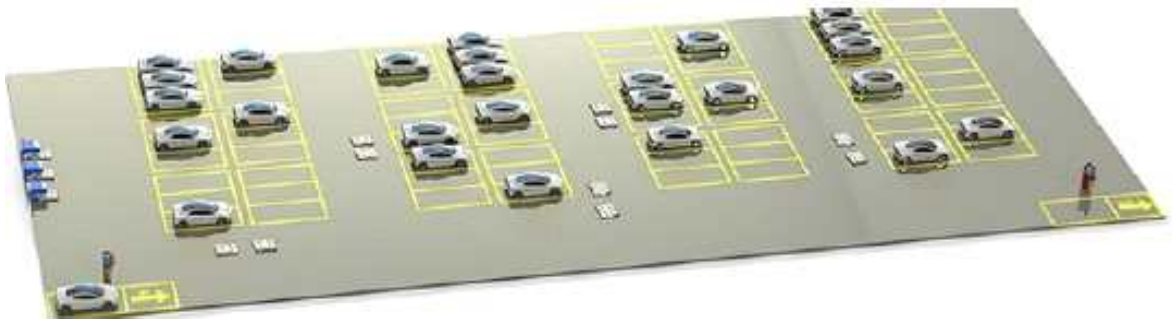
- 현대차그룹은 홍해지역 움마하트 제도 리조트 단지 및 서부 해안의 친환경 웰빙 관광단지 아말라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 내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
- 이동건 현대차그룹 GSO 미래성장전략사업부 상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데일리안, 현대차그룹, 사우디 기가프로젝트에 '친환경 모빌리티' 힘 보탠다 (2024.3.25.)

## ‘발렛파킹 로봇’ 나온다…“비좁은 공간도 알아서 주차 척척”

-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 운반 차량(AGV·Automatic Guided Vehicle) 주차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힘
  - AGV 주차 로봇은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자율주행 로봇 주차 솔루션으로, 평지(자주식 주차장)에서 로봇 스스로 최적의 입출고 경로를 탐색해 무인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 차량 탑승자가 주차장 초입에 차를 두고 내리면 납작한 사각형 형태의 AI 주차 로봇 2대가 차량 아래로 들어가 각각 앞바퀴와 뒷바퀴를 들어올려 로봇 몸체 위에 싣게 되고, 이후 AI를 활용해 최적·최단 경로를 탐색해 빈 공간에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게 됨
  -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은 주차설비와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50년 이상 스마트 기계식 주차 시스템의 디자인부터 제조, 설치, 유지보수를 비롯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

〈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의 AGV 주차 로봇 시스템 (출처: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 〉



-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AI 주차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계획
  - 올해 3분기 시제품 완성과 주행 테스트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자율 AGV 주차 로봇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 AGV 주차 로봇이 탑재된 AI 주차 솔루션이 상용화될 경우 도심 밀집 지역 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 감소 및 친환경 주차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 회사 관계자, “AGV 주차 로봇과 AI 주차 솔루션은 주차장간 이동거리가 긴 대형 쇼핑몰 주차장 등에 적용돼 운전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향후 AGV 로봇 상용화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과 그에 따른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출처 : 매일경제, ‘발렛파킹 로봇’ 나온다…“비좁은 공간도 알아서 주차 척척” (2024.4.8.)



## '레벨4' 자율주행차 인천 도심 실증 사업 돌입

-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레벨4' 수준의 실증차가 국내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
  - 레벨4 자율주행은 고도의 자동화 단계로 차량이 특정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간섭 없이 주행이 가능한 단계
  - 인천 도심 약 60km 구간에서 시범 운행에 나설 레벨4 실증차는 현대모비스 주도로 국내 약 20여 곳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이 함께 개발을 진행

〈레벨4 자율주행차〉



- 이번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심 도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자율주행 실증차에는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등 고정밀 센서와 AI 시스템 등 레벨4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복잡한 도심 도로 환경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면서 고도의 자율주행 임무를 수행하게 됨
  - 현대모비스, 이번 실증 과제를 통해 그동안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 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며 국내 차량용 SW 개발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양산 수준의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목표

출처 : 오토헤럴드, 사람도 조건도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인천 도심 실증 사업 돌입 (2024.4.16.)

##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사업 본격화...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공개하고 자체 로봇 오픈 API 플랫폼 '브링온(BRING-ON)' 출시를 통해 로봇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설 예정
  - 브링은 배송 로봇과 로봇 오픈 API 플랫폼이 결합된 상품으로 식음료 배달, 사무실 내 우편 배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로봇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브링은 플랫폼 제어를 통해 사무실·호텔·아파트 등 로봇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도 바로 배치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브링온은 오픈 API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송 주문과 로봇을 연동해 배송 서비스의 유형이나 로봇의 기종에 제약받지 않고 고객의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님

〈카카오모빌리티 BRING〉



-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LG전자와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함
  -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는 서울 성수동 '누디트 서울숲'에 브링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봇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
-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연구소장,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기술이 집약된 브링은 어떤 서비스·로봇이라도 연동 가능한 확장성이 특징”이라며
  - “로봇 기술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일상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

출처 : 서울경제,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사업 본격화...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2024.4.22.)